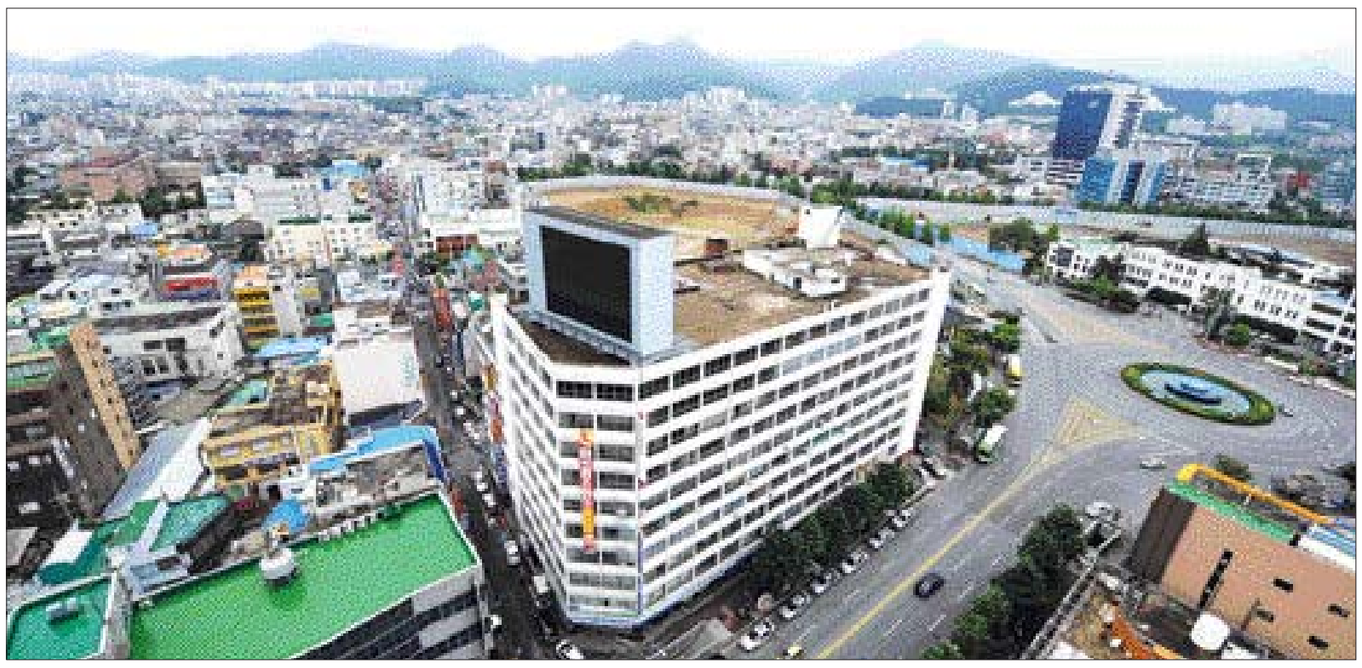
신속하고 편리한 대출
동일저축은행 226-0180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수완신도시 파크레
분양문의 062)367-3000

제18103호 1판 1952년 4월 20일 창사 대표전화 (062)2200-500·222-8111 www.kwangju.co.kr 2008년 7월 4일 (음력 6월 2일) 금요일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과 더불어 광주 문화산업 육성의 기틀이 될 투자진흥지구가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전일빌딩 일대에 조성된다. 투자진흥지구 내 핵심부지인 전일빌딩(중앙) 일원 전경. /위직량기자 jrwi@kwangju.co.kr

문화전당 주변 '문화특구' 조성

전일빌딩 일대 1만5천㎡ 사업지 선정

특급호텔·벤처타워 문화 인프라 확충

국립 아시아 문화전당과 인접한 광주 도심에 문화기업· 산업체가 입주할 수 있는 문화특구(투자진흥지구)가 조성된다. 〈관련기사 3면〉

투자진흥지구에는 전당 방문객들이 체류할 수 있는 특급호텔을 비롯해 문화산업벤처타워가 들어서는 등 문화 인프라가 확충돼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3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이하 추진단)에 따르면 광주시 동구 금남로 1가 1번지 전일빌딩, 광주동부경찰서 일대 1만5천283㎡를 투자진흥지구 우선 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추진단은 "용역을 통해 금남로 1가 1번지 일대가 문화전당과 인접해 있고, 도심 공동화 해소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 등이 강점으로 꼽혀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고 밝히고 있다.

추진단은 투자진흥지구 조성사업을 전액 민자방식으로 추진키로 사업방식을 정하고 투자자 모집을 위해 국내외 투자유치 설명회를 갖는 등 사업을 본격화하고 있다.

추진단은 올 연말까지 투자자를 공모한 뒤 사업 추진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을 2009년 상반기에 설립할 계획이다. 이어 대상부지를 투자진흥지구로 지정한 뒤 내년 하반기에 사업에 본격 착수, 문화전당이 개관하는 2012년까지 사업을 완료할 방침이다.

모두 1천500억원 규모의 사업비가 투입되는 투자진흥지구에는 251개 객실을 갖춘 10층 규모의 특급호텔(7천300㎡)이 만들어지고 문화 관련 기업체들이 입주할 수 있는 10층 높이의 문화산업벤처 타워(7천300㎡)도 건립된다.

문화산업 벤처타워는 문화 콘텐츠 창작집단, 문화산업체 등 문화산업 전문기업들이 입주한 문화클러스터로 국립아시아 문화전당을 뒷받침하는 구심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문화중심도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업체에게는 각종 국·시비 지원이 이뤄지는 등 인센티브도 제공된다.

입주 문화사업체는 시설임대료를 감면 받는 것을 비롯해 직원 교육·인건비 일정액을 국·시비로 보조받는다. 또 공동제작 작업 시설 설치비용, 창업보육센터·마케팅 센터 운영 비용 등도 지원된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AI 끝나자 '닭고기 대란' 올 여름 삼계탕은 '金계탕'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소멸을 선언했지만 대량 살처분 조치로 생닭 공급이 달려 가격이 치솟고 있다.

특히 삼계탕집을 비롯한 생닭 소비처 관계자들은 소비회복도 안된 마당에 물량 부족으로 가격이 치솟아 삼계탕 값이 폭등하는 등 자칫 '닭고기 대란'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3일 전남도와 전남계육협회에 따르면 지난 2개월여 동안 극심한 불황을 겪었던 치킨집이나 삼계탕집이 최근 AI 소멸 발표와 여름철 성수기가 되면서 손님들이 점차 늘고 있다. 닭 가공업체들은 평소보다 도축 물량을 20%가량 늘리고 있지만 음식점들의 수요를 제대로 맞추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따라 닭고기 가격도 30~40% 가량 크게 올랐으며, 초복인 19일을 전후해 닭고기 품귀현상이 벌어질 가능성마저 제기되고 있다.

이같은 닭값 상승은 소비 증가에 따른 것이라기보다 전국적으로 이뤄진 대량 살처분과 정부 수매 등으로 공급이 부족해 일어난 현상이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다. 실제 올 AI로 전남지역 16만8천마리를 비롯 전국적으로 615만 마리의 닭이 살처분됐다.

전남지역의 산지 생 닭 가격은 1개월 전에 kg당 1천100원~1천200원이었으나 7월 들어서는 40% 상승한 1천625원을 웃돌고 있다.

이마트 광주점에서 팔리는 1.2kg짜리 생 닭 한 마리 값도 1개월 전 3천500원에서 현재는 36% 가량 오른 5천500원으로 뛰었다.

배달을 전문으로 하는 치킨집이나 일부 삼계탕집의 경우, 수요는 늘고 있지만 생닭을 제때 공급받지못해 손님을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다.

광주시 북구 연제동 B치킨집 김모(49)씨는 "예전에 팔던 만큼 생닭을 공급받고 있지만 요즘 들어 주문이 늘면서 오후 9시면 닭이 떨어져 배달을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화인코리아 나원주 대표는 "AI 완전 소멸과 닭고기 성수기를 맞아 대부분의 닭 가공업체들이 도축 물량을 20% 가량 늘렸다"면서 "닭값이 상당히 올랐음에도 농가들은 사료값 상승과 사육 두수를 줄인 탓에 수익을 올리지 못하고 있다. 다만 안전한 먹을거리라는 인식이 정착돼 가고 있어 점차 수익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돼 다행이다"고 말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한나라당 새 대표에 박희태씨

한나라당의 새로운 대표로 박희태 후보가 선출됐다.〈관련기사 3면〉

한나라당은 3일 오후 서울 올림픽공원 체조경기장에서 제10차 전당대회를 열고 박희태 후보를 대표 최고위원으로 선출했다.

또 정몽준, 허태열, 공성진, 박순자 후보가 새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박희태 대표 등 새 지도부는 앞으로 2년간 153석의 거대 여당 사령탑으로서 국정의 한 축을 담당하게 됐다.

이날 경선에서 박희태 후보는 현장 대의원 투표와 여론조사 결과를 합산해 29.7%(6천129표)를 득표, 25.6%(5천287표)를 얻은 정몽준 후보를 제치고 대표 최고위원으로 당선됐다.

친 이명박계열인 박 대표 체제가 들어섬에 따라 향후 당·청 관계는 보다 유기적인 협조가 이뤄질 전망이다.

또 친박(親朴)계 대표주자로 출마한 허태열 후보는 15.9%(3천284표)로 3위, 친이(親李·친 이명박) 주류인 공성진 후보는 12.5%(2천589표)로 4위를 차지해 각각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임동욱 기자 tuim@

저성장·고물가 내년까지 계속

한은 "정부 재정 지출 신중해야"

한국은행은 3일 저성장·고물가 현상이 내년 상반기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제유가의 고공행진 등으로 인한 저성장·고물가 흐름이 올해 안에 끝나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정부부터 재정지출 확대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내수부진을 해결하기 위해 재정지출 확대에 나설 경우에 물가불안을 가중시킬 수 있는 만큼 추경이나 내년 예산 편성시에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한다는 견해다.

한은은 고물가·저성장 현상이 상당기간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다. 구체적인 시기를 확정할 수 없지만 내년 상반기까지는 불안상태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원유의 구조적인 공급부족이 쉽게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은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여기서 높은 수준이라는 뜻은 한은의 목표치인 3.5%를 넘는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그는 특히 "공공요금 조정이 올해 보류되는 경우가 많지만 내년 상반기에는 현실화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내년 물가불안의 요인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과도한 시중 유동성도 물가 불안의 요인중 하나로 꼽히고 있다.임종룡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물가가 크게 오르는 과정에서 수요 부문의 역할이 있었는지에 대해 판단하기 위해 연구기관에 분석을 의뢰한 결과 과잉유동성도 일정 부분 역할을 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2년 미만의 정기 예·적금 등을 포함한 광의통화(M2·평잔기준)는 4월 기준으로 작년 동월 대비 14.9%가 늘어났다. 지난 1999년 6월의 16.1% 이후 거의 9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연합뉴스

남부대학교
전남과학대학